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2:1-10)

‘본질상’이라는 말은 ‘본성적으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은 대단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낙관주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1. 인간의 본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래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뒤에는 죄가 있고, 죄 뒤에는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요 저주 받았던 자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은

한글 성경에는 4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은 죽었던 자요, 노예였던 자요, 저주 아래 있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존자 하나님이시며, 인격자 하나님이시며, 주 하나님이시며,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인함입니다.

3.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10절).

선한 일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1-4계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은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도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5-10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으로 범사에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 번 십계명을 우리 신앙의 도전으로 삼으시고 범사에 선한 일을 행하므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But God...

(Ephesians 2:1-10)

The word 'by nature' means 'innately.' In other words, there is no way for us to have life because of our innate nature. But the core message of Ephesians 2 is that, thanks to God, we have been saved from our dead condition. Previously, the perspective of people in ancient times was very pessimistic, but by God's grace we can now have an optimistic view.

1. The situation of human nature

We were people who didn't have any hope before God, because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and sins. We were slaves of Satan. There was no freedom from sin. In other words, the Apostle Paul was saying, "Behind death, there are sins, and behind sins there is the world."

All human beings have been captured by the appetites of the flesh and trapped under the curse of the world. They have no hope but are in a desperate situation.

2. But God

The word 'but' is not written in verse 4 of the Korean Bible, but it is written in the original Greek and also in the English Bible. We were once dead, enslaved, under a curse, and by nature children of wrath, but God has made us alive by His great love. The God who has made us alive is the Creator. He is self-existent One, who has perfect character, and is the Judge.

So, we were dead spiritually and disconnected from hope. We were chained by sin. Because of our sin, we were objects of wrath. However, God saw us falling into the world and lifted us up to salvation. Moreover, He not only gave us new life, but also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This is because of God's love, righteousness, grace, and mercy.

3. We must repay with our life for God's grace

God made us alive so that we might receive new life. He created us into existence so that we might search for the Holy-fire. We who have been saved, owe God our life. What we must do is love God and live our life according to the purposes which He has created us for. In other words, we must do good works (10).

To do good works means just that we must do our duty before God. This duty is well explained by commandments 1-4. The good works that we are called to do is not only for God but also for other human beings. So, we also refer to commandments 5-10. Therefore, we must always do good works with our faith.

My beloved Christians!

God has made us alive from our death in transgressions and sins. How is your faithfulness before God at this time? Once again, by looking at the challenges of the Ten Commandments presented to our faith and good work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repaying Him for His lo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بل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X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공동의회

이종윤 목사 원로·공로목사 추대의 건 -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2층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2층에서 공동의회가 열린다. 공동의회 안건은 이종윤 목사 원로, 공로목사 추대의 건이고, 공동의회 의장은 은무리 교회 담임목사인 이수중 목사가 대리로 맡게 된다.

이는 당회장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당회장을 불러 임시회의장으로서 이번 안건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교회에 등록된 만 18세이상 세례교인(입교인)은 공동의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기 바란다.



8월 13일(금) - 창년 1, 2부, 신혼 가정부 여름 수련회에서 특강 중인 이종윤 목사

한국교회 8.15 대성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포해야』

오늘 오후 4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8.15 대성회'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후 1시 명성교회 월드컵로리아센터에서 한국교회 8.15 대성회의 신학적 의미를 토론하는 학술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신학학술포럼은 한국교회 8.15 대성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주관한 것이다.

이날 민경배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이종윤 박사(서울교회 담임), 정장복 박사(한일장신대 총장) 등 3명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교회사적 입장, 성경신학적 입장,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한국교회 8.15 대성회를 조명하는 가운데 이종윤 목사님은 "우리는 이번 대성회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36년 동안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사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8.15 해방'을 가능케 해주신 구원자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성회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제를 마친 후 패널토의에는 최갑종 박사를 비롯해 9명의 패널들이 토의를 벌이며 한국 교회가 역사와 민족 앞에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대성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10장로교의 날 행사영상 홈페이지에 등록

지난 7월10일 열렸던 1교단 다체제 연합을 선언한 2010년 장로교의 날 기념 연합예배의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교회홈페이지 - (<http://www.seoulchurch.or.kr>) 메인화면 상단부 장로교의 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신 후 하단부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시면 예배영상을 볼수있다.

2010년 8월 학습·세례식 거행

우리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8월11일 수요일 1,2부 예배 시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김만윤 김문범 김중오 김지현 10 남인석 류기승 류한민 송인덕 윤하나 이용기 임재중 임하나 전선경 최춘자 1
- <개종자> 백운기 신현창
- <입교자> 노희수 박소연 6 박연경 윤병서 이충원 차지훈 황신혜
- <학습자> 김선희 9 김용운 김정호 4 노서연 2 박기태 1 박춘명 신유경 2 신철수 오수만 윤성지 1 이경화 이영필 이지민 2 이지예 이현정 6 임동영 정은주 2
- <유아세례자> 김찬중 김효은 1 신살롬 유용준 이희열 전사랑 정우성 홍가은

추석 연휴 - 성경통독사경회

일정: 9월 22일(수) 오후 1시~9월 23일(목) 오후 5시 / 범위: 창세기~사사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통독사경회가 9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양일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며 성경통독범위는 구약성경(창세기~사사기)이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2010 사랑의 바자 섬김위원

2010년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 돕기' 사랑의 바자회(위원장 임상현 장로)가 오는 9월 9일(목)과 10일(금) 2일간 열린다. 이번 바자행사를 담당할 섬김위원은 다음과 같다.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도: 박종민 목사
- 위원장: 임상현 장로
- 차장: 김금준 집사

부서	부장	실행위원
기획부	김시환	김영희 노재현 박승현 이민광 한상준
재정부	송인수	인분선 이인순 정경자
판매관리부	오승민	고정숙 박광식 서춘식 윤갑숙 임광호 정미연 최금숙 안인진
섭외부	이동만	김성준 백승갑 윤석원 윤숙희 은기장 이양철
홍보부	김규태	오주명 유은경 진교남
시설관리부	오치열	강석조 김상태 김승록 김진달 김진환 남정열 양준경 오교식 오유식 윤명규 이길재 이수우 이종창 임낙식 정인주
주차관리부	최광성	주동재 주영도 한주찬 외 제1,2스데반회 및 피택집사
		강택근 권혁만 김정호 김해수 박창구 송인권 이남성 장영일 진승근 최승환 현성철

- 점포지도 교구위원장 노문환 장로 (점포명/지도/점포장/영업부장/총무부장)
- 1점포 / 한상은 / 김광신 / 강승웅 송미령 김연화 9점포 / 황 광 / 이관규 / 윤종덕 황노전
- 2점포 / 한상은 / 이복규 / 양득춘 손현순 10점포 / 황 광 / 홍성주 / 예완식 김은순
- 3점포 / 유문건 / 하인선 / 김종철 김수원 11점포 / 서명철 / 노문환 / 김광룡 김양숙
- 4점포 / 유문건 / 임훈규 / 임광우 윤용미 12점포 / 서명철 / 임상현 / 장 덕 권희순
- 5점포 / 박종민 / 최학인 / 이승래 최미아 13점포 / 노현상 / 조정식 / 김장섭 이미송
- 6점포 / 박종민 / 노송성 / 권장철 최성희 14점포 / 노현상 / 오정수 / 안준홍 박정임
- 7점포 / 정수길 / 이영기 / 정동학 남영주 15점포 / 문정훈 / 신용식 / 황병석 김희순
- 8점포 / 정수길 / 서문석 / 강낙훈 서영희 16점포 / 문정훈 / 하영수 / 송인수 박한옥

주·정차 위반 이의 신청

주일예배 주차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청구를 통보받으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의제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니 사무국으로 통지서를 가져오기 바란다.

2009년 9월15일(화) 강남구청 주차정책 설명회에서 2009년 10월부터 삼성로 주일 주변주차가 한티공원 앞에서 맞은 편 은마 아파트 앞 노변까지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던 것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버스정류장(정류장 표기 좌우 20m 이내)과 은마아파트 진출입로에 주차한 성도는 구제되기 어렵다. 앞으로 주일예배시간에 버스정류장(정류장 표기 좌우 20m)과 진출입로를 피해 주차관리팀 섬김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기 바란다.

한국교회 8.15 대성회의 신학적 의미

‘한국교회 8.15 대성회’를 앞두고 지난 12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학술포럼에서 이종윤 목사님이 발제한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 8.15 대성회의 신학적 의미: 어제, 오늘, 내일』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틀어가는 말: 성경의 역사! 단지 지나간 옛날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 예식에 관한 율법을 통하여 철저히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8.15 대성회’는 65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사건, 곧 8.15 해방을 신앙적, 역사적으로 현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I. 해방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흥해 사건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구원사역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므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III. 구원역사에 대한 신앙고백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첫째 농사를 지어 얻은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면서 지난날의 구원역사를 고백합니다 (신 26:5-9).

이 신앙고백 속에는 다음의 7 가지 신앙고백이 함

축되어 있습니다. 1) 민족의 기원사 2) 민족의 이동사 3) 민족의 변역사 4) 민족의 고난사 5) 민족의 신앙 6) 민족 해방사(구원사) 7) 가나안 정복사

이 같은 신앙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는 역사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8.15 민족 해방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8.15 해방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8.15 해방은 우리 민족, 특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만한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연합군이 8.15 해방의 역사적 도구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8.15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었습니다.

8.15 해방은 어린아이로부터 팔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정신대로 끌려간 꽃다운 처녀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8.15 해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고백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V. 나오면서: 한국교회 8.15 대성회의 내일을 위한 신학적 의미

과거의 영광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이 참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 8.15 대성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8.15 해방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고백하고, 유월절처럼 교회력의 절기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8.15 해방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한국의 기독교 모든 교파는 연합하여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동포를 김정일 우상화와 정치적 폭정과 굶주림, 그리고 신앙의 부자유로부터 해방토록 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8.15 대성회’가 내일을 위하여 주는 신학적 의미는 한국의 모든 기독교는 앞으로 교파간의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파간의 참된 연합이 없다면 한일합병과 같은 또 다른 역사적 비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합병은 조선의 종교이자 정치철학인 유교의 사색당파의 싸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8.15대성회’를 통하여 한국의 모든 교파들은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목사이종윤 · 박사이종윤 - 목회자의 길 4

신병 이종윤입니다

이종윤은 논산훈련소에서 전반기에 신구약성경을 완독했다. 후반기 교육 중엔 영어 신약성경을 읽었다. 불침번을 밤 12시 넘어서는 거의 매일 대신 서주면서 성경을 읽었다.

5·16군사혁명이 일어나던 전날 밤 열차로 전방에 배속되어 가는 도중 대전역을 지날 무렵 기차 안에서 새벽비상이 걸렸다.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서울출신 학보병인지라 수원역을 지나서부터 많은 병사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집으로 도망갔다. 용산역에 내렸을때 수십 명만 남아 지휘관이 난감해 하면서 너희들도 집에 갔다가 오후 5시 출발전까지 헌병에게 잡히지 않도록 요령껏 다



논산훈련소에서 이종윤 목사(오른쪽)

너오라고 했다. 준법정신이 누구보다 강한 이종윤은 기대하지 않았던 임시 휴가명을 받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종윤은 강원도 금화군 와수리에 위치한 3사단 18연대 3대대 12중대 탄약수로 배속을 받았다. 그 날이 토요일 밤이었다. 높은 산 등성에 친 천막에서 전

방 야전 군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다. 내일 어떻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밤을 보냈다. 새벽동이 뜨기 전 어제 저녁 중대장에게 신고하던 막사를 찾아갔다. 아직 잠을 깨지 않은 중대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며 누구냐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어제 밤 배속받은 신병 이종윤입니다 했다. 무슨일인가. 묻는 중대장에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달라고 했다. 그는 죽고 싶다고 했다. 이종윤은 예수 믿기 위해 군입대했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탈영하겠다고 맞섰다. 그때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중대 선임하사가 손에 전통문 한 장을 쥔 채 보고차 들어왔다. 곧 군단 검열이 있는데 천막 밖에 돌돌에 칠 할 페인트가 없다는 불멘소리를 했다. 이종윤은 재빨리 내게 돈이 있으니 이것으로 페인트를 사자고 했다. 선임하사는 덤푼 돈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으나 이종윤은 나를 교회 보내 주셔야 이 돈을 내놓겠습니다 했다. 결국 이종윤은 중대 인사계 병장의 인솔하에 육단리에 있는 연대교회로 가게 된다. 비 내리는 날 산비탈을 미끄럼 타듯 내려와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불을 키고 달려오는 질책을 보고 이종윤은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별 돌을 단 사단장 차를 이등병이 세운 것이다. (다음 호 계속)

말라위 단기선교를 마치고



어린이 교육사역



이·미용 사역



진료를 마치고 기도해 주시는 황광 목사님

말라위 땅에 예수의 바람이

인인호 집사(11교구)

이렇게 못먹고,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리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물질의 가난은 몸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겠지만 말라위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곳을 멀리 않은 날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의료선교팀은 선교팀이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합류하며 보게 된 첫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맨발에 쭈스 한 컵 받기 위해, 행여 모자라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여 절박한 모습으로 서있는 아이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도착 즉시 짐도 풀지 않은 채 약을 준비하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에 책걸상 놓고 진료하고 열어놓은 트럭 뒷문은 훌륭한 약국문이 되었고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여 181명을 진료함으로 토요일 진료를 마쳤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후 5시경이 되면 벌써 어둑어둑해져 환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전기보급율은 8%이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마칸디교도소와 마칸디서울교회에서 234명을, 마칸디교도소에서는 22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소는 항상 북새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지 치치리 교도소는 살인등 흉악범이 같이 수용

'1만원의 정성으로 사랑의 온도계를 뜨겁게'-현재 온도는 265도-



8월 한달 동안 전개되고 있는 사랑나눔 A+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지난 주에는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 중 많은 수가 10% 절제약정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약정에 참여한 학생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약정대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번 절제참여로 인하여 참다운 크리스찬 젊은이로서의 생활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온도계 행사에는 지난 주일 까지 265만원이 모금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8월 한달 동안 꼭 한번씩은 참석하여 사랑의 온도를 계속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사랑나눔A+캠페인의 네 번째 행사인 옷

장비우기운동 참여를 위하여 미리 미리 시간을 내어 옷장에 남아 있는 재활용의류를 정리하여 두고 한달 동안 모아진 의류를 향후 순례자를 통하여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바자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주간 추가로 접수된 나눔과 절제약정에 동참한 성도명단은 다음과 같고 동참한 성도들은 8월 한달 동안 적립된 나눔과 절제기금을 9월 첫주 바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1% 나눔운동 참여약정자(꺠호안은 운영기업명칭)**
강일랑(유비즈텍스타일) 고석태(솔로몬부동산) 구귀순 김원중(깨끗한 세탁소) 서명철 오경자 오세복(KT) 윤미란(명성이 자자한 국시집) 윤미란(친친) 이응선-박순봉 장성자1(상우건설 상우산업)

***10% 절제운동 참여약정자(꺠호안은 가족 또는 후원부모 이름)**
강영훈 강예빈 강예선 강지훈(구귀순) 구예슬 구예은 김은별 김명찬 김미리 김성경-김요한(이갑연) 김수경 김일영 김예원 김윤 김은초 김정은 김정후 김정훈(김수영) 김지오 김형준 김형준 남유라 노상훈-노혜지-노혜민(노현상) 문예림 박민우 박지수 박혜원 배규미 백지진 서가인 서명철 서유진 서정민 양희원 오덕기 오세복 오수민 오주영 옥준용 유한희 윤숙희 이민석 이수민 이영은 이은 이재현 이준우 이지형 이재은 이태웅 이혜진 이효진 장성자1 장영준 전강민 전은재 정지혜 정하은 정현수 조수정 조음식(유명석) 차소영 최건 최민준 최유리 최현 하정자 하준 후한혜자 황성진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서울레이디스싱어즈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윤의중교수(창원시립합창단 상임지휘/한세대 학부장)의 지휘로 '주는 나의 목자(오병희)', '사랑(조성은)' 등 세곡을 이아람선생의 피아노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점심도 거르고 진료하여 차트에 기록된 사람만 508명, 그외에 기록하지 못하고 약만 드린 분들도 있으니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약 봉투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황광목사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잘 씻기만 하여도 생기지 않을 피부병이 많았으며 특히 곰팡이균 감염자가 많았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라위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깃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김용진 선교사님께는 결코 혼자서 아님을, 그리고 말라위 서울교회 성도님들께도 서울교회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정

- 개인전 : 오영숙 권사(12교구) 수채화전 8월20일(금)-26일(목)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문화예술원(031-324-2063), 감사예배-8월20일(금) 오후4시
- 이사 : 주민호 오재영 성도 가정 대치동 900-32 로즈빌 402호
- 개업 : 발렌시아 숙박복(대치동) 13교구 이도성 성도 508-5829
브니엘 어린이집 이재하 성도 이운수 성도(11교구) 개포동 12번지 대청아파트 304동 105호(Tel.6160-5571)

- 주간식당봉사 : 한나 전도회(8.15) 리브가전도회(8.22)
- 금주의 식사 : 한종표 집사 박명희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 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당회원 수련회를 위하여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